

# 한교총 “정교유착방지법, 제정 시도 재고하라”

## 정부 국정 기조에 우려 “민법 개정 대신 특별법으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이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공동 대표회장단 명의의 성명에서 한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이번 정책이 자칫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교회가 사이버·이단 집단에 고지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정교 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한교총은 “현재 발의된 정교유착방지법안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권 강화와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교분리 등을 추가하고 있고 법안 해산 시 국고 귀속 강제를 포괄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긋는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나 신천지 등 사이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진정한 정교분리 확립도 요청했다. 한교총은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고 종교는 국민이 선택한 정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법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법 반증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민법에 표현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사이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처벌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통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 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 35주년 기념식

## 기증인·뇌사 기증인 유가족·이식인 등 120여 명 참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는)는 지난 22일 서울시 서문밖교회(담임 이혁 목사)에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예배로 시작했다. 예배는 서문밖교회 담임 이혁 목사의 기도, 시냇가푸른나무교회 담임 신용복 목사가 ‘질그릇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지난 2012년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신 목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살려 줬다. 내 생명마저 하나님의 것이다. 장기기증 등 헌신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했다.

1996년 신장 기증을 실천해 올 해로 기증 30주년을 맞은 11명의

기증인에게 ‘생명나눔 기념패’가 수여되기도 했다.

생명나눔 운동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공로패는 새생명나눔회 이태조, 엄해숙 씨와 도나헤밀리 강호, 장부순 씨에게 전달됐으며 수도권 42개 대학 가운데 누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가장 많은 숭실대학교의 ‘베이트봉사단’과 매해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는 명지대학교 P1P1 연합봉사 동아리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향후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나눔 찬양단, 라우체 전진·환운성 씨, 연성대학교 김정영 교수를 분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기성, 기아대책과 미얀마 이재민 위한 센터 열어

## 미얀마 만달레이 성결센터 기공식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은 기독교대 한성결교회(회장·총회장 안성우 목사)와 함께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서 이재민 테이케어 및 CFCT(아동 중심 지역사회 변화) 사업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공동 선교·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

로, 미얀마 만달레이 기아대책 지역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재민 테이케어 및 CFCT 사업센터는 지진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교육·지역개발이 결합된 통합 사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는 향후 15년간 기아대책이 운영하며 지역 사회 회복과 자립을 지원한 뒤, 현지 교단과 지역공동체에 운영을 이양해 지속 가능한 현지 주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성총회는 본 사업을 통해 미얀마 지진 이재민을 위한 선교적 지원에 동참하고, 기아대책은 현지 실행 파트너로서 센터 건립과 운영, 지역개발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기공예배에서 안성우 기성총회장은 “이 센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신년하례회 개최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양기성 박사, 이하 웨협)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구세군부천교회(조한근 사관)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 방향 공유와 함께 웨슬리언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웨슬리언 평신도 사회성화 운동’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웨슬리언 전통을 계승하는 각 교단 지도자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예배와 교제를 나누며 새해 비전을 공유했다.

제1부 예배는 상임회장 이선목 목사(송의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기도는 평신도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손재형 장모, 성경봉독은 평신도지도자협 서기 이상훈

장모(하늘교회)가 맡았다. 설교는 대표회장 양기성 박사가 ‘성령충만한 평신도의 사회적 성화’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웨슬리언 신앙의 핵심인 ‘성화’가 개인의 경건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설교 후 새해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평신도 중심의 사회성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80회 정기 이사회 개최

## 2026년 사업계획 논의…“1천 교회 결연, 신앙 유지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지난 1월 22일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서 제80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전 2030 실천 운동’을 이루기 위한 2026년 군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병 복음화를 통한 한국교회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고된 2025년도 사업 현황에 따르면, 연간 진중 세례 인원이 4만 명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군선교연합회는 매년 신규 세례자 6만 명과 기존 세례자 4만 명 등 총 10만 명을 민간 교회로 연결하는 파송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거점교회와의 연결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날 승인된 202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연합회는 약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교회 활동과 미래전에 대비한 선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종교 장병 대상 문화·미디어 사업 활성화 △육군훈련소 연부대군인교회 등 주요 군인교회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지원 △현장 사역자 영성 강화 컨퍼런스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군인교회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을 전국 거점교회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지속적인 신앙이 이뤄지도록 군 선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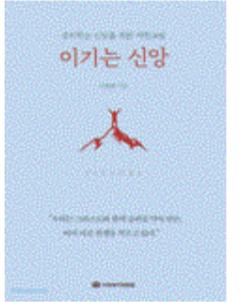
이에 따라 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 10개 파송 교단 및 전국 16개 지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군복음화가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살리는 핵심 통로가 되도록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 신간 소개

## 이기는 신앙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생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가는 시대사조 속에서 힘써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실천할 근거와 가이드를 ‘승리’라는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대를 거슬러 참된 승리를 향해 달음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이다.

저자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겪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인문학적 자료들 속에서 얻은 통찰로, 조용한 패배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며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흐려져 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승리하는 신앙의 근거를 드러내고, 승리의 대상과 방향을 제시하며 용기를 북돋운다.



특히 저자는 제자훈련 목회와 분립개혁을 통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몸소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기에 이 책에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일회적인 구호나 설교가 아닌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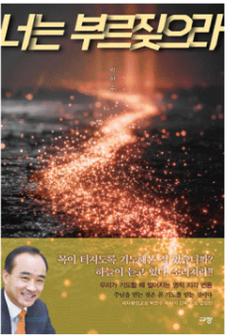
저자/이권희  
출판사/국제제자훈련원

## 너는 부르짖으라

“오늘 나는 기도에 전부를 걸고 있는가?”

저자는 교회의 사명을 전부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교회로 정의한다. 그는 이 책에서 응답 이상으로 더 큰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능숙히 역설한다.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여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에 기도할 것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책은 기도를 전염시킨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기도를 믿으라”, “기도를 믿어야 기도한다”, “주님을 믿는 것은 곧 기도를 믿는 것이다”,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의 기도를 회복하는 절규로 들린다.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박한수 출판사/규장

원고 모집  
☎ 070-7132-0091  
간증/개척수기/감동스토리/미담사례/개교회소식/독자투고

# 총회성결교신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 모집 학과

학 과	입학 자격	비 고	
신 학 부	신 학 과(4년)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졸업 후, 교단 내 전도사 자격증 취득
	목회 학과(4년)	·세례교인	
사이버수업	신 학 과(2년)	·고졸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수료 후, 교단 내 교육전도사 자격 취득 (한정 51주 교육전도사)
	신 학 과(4년)	·고졸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서울 본교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 · 방학 중 집중 수업 진행 · 졸업/수료 후 신학부와 동등한 자격 취득
	목회 학과(4년)	·세례 교인	
신 학 과(2년)	·고졸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기독교 문화 예술 학부	기독교음악학과 (단기 4주)	·세례 교인	· 찬양사역자, 지휘자, 반주자 양성

### 수업 일정

- 주간 (월, 화)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사이버 : 매주 강의 시청 후 레포트 제출

###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홈페이지/www.sts.kr 다운로드 및 우편가능
2. 원서접수 : 2025. 12. 30 ~ 2026. 2. 20 16:00까지

본교 교무과

3. 입학면접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제출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서약서(소정양식) 1부
4. 고등학교 또는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5. 편입학은 재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반명함판 사진 4매
8. 전형료 50,000원

### 특 전

1. 신학과(4년), 목회학과(4년)는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신학과(2년)는 수료 후, 본 교단 교육전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신학과(2년)는 수료 후, 교회 내 간사로 임명받아 섬길 수 있습니다.
4. 각종 장학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sts.kr

·문의전화 : 02-725-7078 / 070-7132-0083

·학교주소 : 서울시 중로구 인왕산로 17길 11

예성총회본부 2층 총회성결교신학교 사무실

총회성결교신학교  
SJVNGYJ - THEOLOGICAL COLLEGE